

6. <보기>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관한 글을 쓰고자 할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어떤 농부가 세상을 떠나며 형에게는 기름진 밭을, 동생에게는 메마른 자갈밭을 물려주었습니다. 형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곡식이 잘 자라자 날이 덥거나 쫄은 날에는 밭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반면 동생은 메마른 자갈밭을 고르고, 퇴비를 나르며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형은 "그런 땅에서 농사를 지어 봤자 뭘 얻을 수 있겠어!" 하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형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밭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신경을 쓰지 않았던 형의 기름진 밭은 황폐해졌고, 동생의 자갈밭은 옥토로 바뀌었습니다.

- ① 협력을 통해 공동의 목표를 성취하도록 해야 한다.
- ②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
- ③ 환경이 좋다고 해도 노력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없다.
- ④ 자신의 처지에 안주하면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 ⑤ 열악한 처지를 극복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보기>와 같이 '안전사고를 예방하자'라는 주제의 글을 쓰기 위해 개요를 작성하였다. 개요의 수정·보완 및 자료 제시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I. 서론
- 최근의 안전사고 발생 현황 ㉠

II. 본론

1. 안전 의식이 부족한 원인 ㉡

가. 안전 교육의 부재

나. 정부 차원의 안전 관리 체계 미비

다. 안전사고 관리 기관의 부재 ㉢

라. 정책 담당자들의 안전 의식 부재

2.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가. 안전 교육 실시 ㉣

나. 정부 차원의 안전 관리 체계 정비

다. 정책 담당자들의 안전 의식 강화

라. 자연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정비 ㉤

III. 결론
안전 의식 강화와 안전 관리 체계 정비 촉구

㉠: 안전사고 발생 통계 자료를 제시한다.

㉡: 이유 항목을 포괄하지 못하므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원인'으로 수정한다.

㉢: 'II-1-나'에 포함되는 내용이므로 'II-1-나'에 통합한다.

㉣: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안전 관련 법안 정비'를 이유 항목에 추가한다.

㉤: 논지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므로 삭제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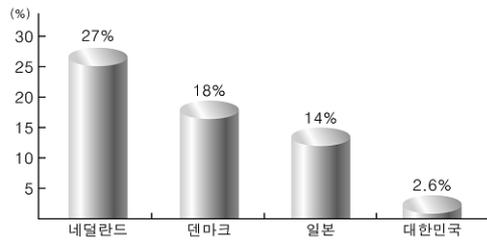
8. <보기>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보완과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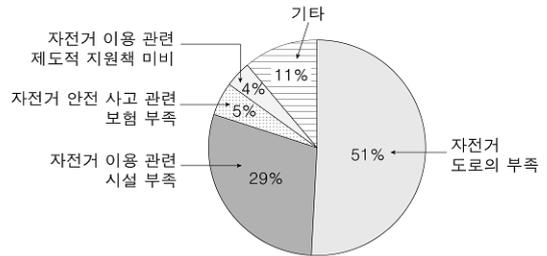
(가) 대기오염 원인 중 자동차 배기가스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10년 간을 살펴보면 평균 70%에 해당한다. 대기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 자동차의 등록 대수는 나날이 증가해 현재 1천 600만 대를 넘어섰고 자동차의 수송 분담률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 신문기사에서 -

(나) 자전거 수송 분담률



(다) 자전거 이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들에 대한 설문 통계



- ① (가)와 (나)를 활용하여 환경오염 문제와 관련지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 ② (나)를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의 실태와 관련지어 제시하고, (다)를 통해 자전거를 잘 이용하지 않는 원인을 설명한다.
- ③ (다)에 나타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하는 데 (나)를 활용한다.
- ④ (나)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행정 당국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다)와 관련지어 제시한다.
- ⑤ (다)에 제시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나)의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가로 조사하여 해결 방향을 모색한다.

9 삶의 지침으로 삼을 만한 문구를 쓰려고 한다. <보기>의 조건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은?

< 보 기 >

○ 올바른 생활 습관에 관한 내용을 담을 것.
○ 아래의 두 가지 표현 방법을 함께 사용할 것.
- 연쇄법: ㉠ 사과는 맛있다, 맛있는 건 바나나, 바나나는 길다.
- 점층법: ㉡ 환경보호! 나를, 이웃을, 인류를 위한 것이다.

- 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 있고,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다.
- ② 좋은 습관의 씨앗은 열 송이의 꽃을 피우고 백 개의 열매를 맺는다.
- ③ 사상을 심어라! 행위를 거둘 것이다. 행위를 심어라! 습관을 거둘 것이다.
- ④ 하루의 행동이 일상의 습관을 낳고, 일상의 습관이 평생의 운명을 좌우한다.
- ⑤ 어제의 행동이 오늘의 나를 결정하고, 오늘의 행동이 내일의 나를 형성한다.

10 <보기 1>은 '건강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쓴 초고이다. 이를 고쳐 쓰기 위한 계획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2>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1 >

평소 운동을 즐겨 하는 사람은 일을 하면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피로를 잘 느끼지 않는다. 운동이 그에게 건강을 선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관리에 관심을 갖고 평소 운동을 열심히 한다. ㉠ 그들은 일에 쫓기고 시간이 나더라도 운동을 한다.

그런데 요즘 청소년들은 학업에 부담을 느껴 운동을 하지 않는다. (㉡) 그러나 공부만 하다가 건강을 잃게 되면 앞으로 닥치게 될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틈틈이 운동을 해야 한다.

< 보 기 2 >

㉠은,
○ '그들은 일을 쫓아 시간을 내어 운동을 한다.'로 고친다. ㉠
○ '그들은 일에 쫓기더라도 시간을 내서 운동을 한다.'로 고친다. ㉡
○ '그들은 일에 쫓겨서 시간이 나더라도 운동을 한다.'로 고친다. ㉢

㉡에는,
○ '한편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열심히 운동을 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다.'를 넣는다. ㉠
○ '그런데 사회적으로 운동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를 넣는다. ㉡
○ '왜냐 하면, 운동을 하기보다는 그 시간에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를 넣는다. ㉢

- ① ㉠, ㉡ ② ㉡, ㉢ ③ ㉡, ㉢
- ④ ㉠, ㉢ ⑤ ㉠, ㉢

11 문맥에 맞는 어휘를 잘못 선택한 것은?

- ① 여론이 안 좋으니 일단 상황을 (관망 / 조망)해 봅시다.
- ② 나는 그 사업가의 사기 ((행각) / 행색)을 만천하에 고발하고자 한다.
- ③ 우리의 우수한 문화를 전 세계에 ((전파) / 전송)하는 역할을 합시다.
- ④ 그는 부모의 유산을 낭비하여 가난뱅이로 ((전략) / 타락)하고 말았다.
- ⑤ 낡기는 하였지만 (수리 / 수선)만 잘하면 이 바지도 새것같이 될 수 있겠다.

12 수업 시간에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한 문장이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표현을 중의적 표현이라 합니다. 일상에서 이러한 표현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모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 문장들은 중의적 표현인데,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말해 보도록 합시다.

- ㉠ 저 배 좀 봐라.
- ㉡ 철수와 영희는 결혼했다.
- ㉢ 아름다운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 ㉣ 남편은 나보다 드라마를 더 좋아한다.
- ㉤ 교실에는 동수의 그림이 걸려 있다.

학생 : _____

- ① ㉠은 '배' 앞에 '먹음직스러운' 같은 수식어를 추가하면 중의성이 해소됩니다.
- ② ㉡은 '철수와'는 '철수는'으로, '영희는'은 '영희와'로 바꾸면 중의성이 해소됩니다.
- ③ ㉢은 '그녀의'를 문장의 맨 앞으로 보내면 중의성이 해소됩니다.
- ④ ㉣은 '나보다'와 '드라마를'의 어순을 바꾸면 중의성이 해소됩니다.
- ⑤ ㉤은 '동수의'를 '동수가 그런'으로 바꾸면 중의성이 해소됩니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 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갭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튼드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이여

한바다 북판 용솨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이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이육사, 「꽃」 -

(나) 바위가 그럴 수 있을까
 쇠나 플라스틱이 그럴 수 있을까
 수많은 손과 수많은 팔
 모두 높다랗게 치켜든 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빈 마음 벌거벗은 몸으로
 겨우내 하늘을 향하여
 꿈쩍않고 서 있을 수 있을까
 나무가 아니라면 정말
 무엇이 그럴 수 있을까
 겨울이 지쳐서 피해 간 뒤
 온 세상 새싹과 꽃망울들
 다투어 울긋불긋 돌아날 때도
 변함없이 그대로 서 있다가

[A] 초여름 되어서야 갑자기 생각난 듯
 운나는 연록색 이파리를 돌아 내고
 벌보다 작은 꽃들 무수히 피워 내고
 양정스런 열매들 가을내 빨갭게 익혀서
 돌아가신 조상들 제사상에 올리고
 늙어 병든 몸 낫게 할 수 있을까
 대추나무가 아니라면 정말
 무엇이 그럴 수 있을까

- 김광규, 「대추나무」 -

(다)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저 혼자 무력(無力)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 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을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저 혼자서 찾는 길이
 여럿이서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벌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꽃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B]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솟는 일골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 이성부, 「누룩」 -

13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대상의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적 의미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대상이 지닌 양면적 속성을 통해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다른 대상과의 비교를 통해 대상의 미덕을 부각하고 있다.

14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가 처한 상황을 ‘하늘도 다 끝나’, ‘비 한 방울 내리잖는’, ‘북쪽 튼드라’ 같은 곳으로 설정하고 있다.
- ② 화자는 ‘꽃 맹아리가 움작거려 제비떼 까맣게 날아오’는 봄날을 기다리고 있다.
- ③ 화자가 지향하는 세계를 가로막는 장애를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로 표현하고 있다.
- ④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가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에 드러나 있다.
- ⑤ 밝은 미래가 도래하리라는 화자의 믿음이 ‘마침내 저버리지 못할 약속’에 담겨 있다.

15 [A]와 [B]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는 [B]와 달리 색채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 ② [A]는 생성에, [B]는 소멸과 생성에 주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A]는 대상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B]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다.
- ④ [A]와 [B]에는 모두 다른 대상을 위한 이타적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A]와 [B]는 모두 의문형 어미를 반복하여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16 (다)의 창작 과정을 추리하여 <보기>와 같이 메모하였다고 할 때, ㉠~㉤에 들어갈 시구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술을 빚는 과정 : 밥과 같은 재료에 발효제인 누룩을 섞은 다음 물을 부어 숙성시킨다.
- 누룩을 발효시켜 술을 빚는 과정에 비유하여 시적 의미를 표현한다.

	표현하고 싶은 의미	표현된 시구
누룩이 뜨기 전	암울하고 어두운 현실 …… [㉠]	무기력하게 있는 상황 …… [㉡]
누룩이 뜨는 조건	전환이 이루어지는 계기 …… [㉢]	
누룩을 넣어 술을 빚음	희망 실현을 위한 희생 …… [㉣]	
빚어진 술	희망한 세상이 펼쳐짐 …… [㉤]	

- ① ㉠: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 ② ㉡: 나자빠져 있다
- ③ ㉢: 알맞은 바람 만나
- ④ ㉣: 죽어 썩어 문드러져
- ⑤ ㉤: 해 솟는 일출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역사 연구는 거시사적(巨視史的) 연구와 미시사적(微視史的)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이는 역사 연구를 통해서 서술하고자 하는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른 것으로 거시사적 연구가 정치, 경제,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대상으로 한다면 미시사적 연구는 주로 개인들의 구체적인 삶을 대상으로 한다.

(나) 거시사는 역사를 이루는 큰 틀을 중시하여 국가의 흥망이나 장기간에 걸친 정치, 경제, 사회의 변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에 관심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거시사를 연구하는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사료(史料)는 정부 문서와 같은 공식 기록들이다. 거시사 연구자들은 이들 자료에서 얻어진 사실들을 일반화하고, 이를 역사적 이론으로 체계화한다. 이때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개별적인 현상이나 독자성은 무시된다.

(다) 미시사는 거시사와 달리 사회 구조보다는 그 속에서 실제로 생활했던 개인들의 삶에 주목한다. 미시사는 역사 속에 존재했지만 거시사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들춰내어 이를 바탕으로 당시 사회의 모습을 재구성하려고 한다. 미시사가들은 의식주, 노동과 여가 생활 같은 일상이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것이 개인에게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에 관심을 가진다. 따라서 미시사에서는 과거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긴 수첩이나 일기와 같은 개인적인 자료들이 오히려 유용한 사료가 된다.

(라) 독일의 포이케르트(Heinrich Pöckert)는 노동자들의 일기, 사진, 비밀경찰 요원의 첩보 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1930년대 후반 나치 치하의 군수공장 노동자들의 생활을 연구하였다. 그는 당시 군수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지각, 결근, 태업이 유난히 많았고, 불량품도 많

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다. 이를 통해 그는 노동자들이 나치에 저항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그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는 당시 독일 국민들이 히틀러에 협조적이었다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나치에 소극적으로나마 저항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포이케르트의 연구 결과는 당시의 독일의 정치 상황이나 나치 조직의 통치 구조에 대한 거시사가들의 연구로는 알아내기 힘든 것이었다.

(마) 거시사는 딱딱한 이론 형태의 역사 진술로 인해 역사를 대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문제점도 있지만, 역사를 구조적인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미시사는 역사를 체계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안목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지만, 개인들의 삶을 이야기 형식으로 생생하게 복원해 내어 대중들로 하여금 역사의 역동성과 구체성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17 (가)~(마)의 핵심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역사 연구의 두 가지 방법
- ② (나) - 거시사 연구의 특징
- ③ (다) - 미시사 연구의 특징
- ④ (라) - 미시사 연구의 구체적 사례
- ⑤ (마) - 거시사와 미시사 연구의 전환

18 '거시사'와 '미시사'를 비교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거시사	미시사
① 연구 대상	사회의 전체적인 구조	개인들의 구체적인 삶
② 연구 자료	정부 문서와 같은 공식 기록	수첩, 일기 등의 개인적 자료
③ 서술 방법	이론 형태의 서술	이야기 형식의 서술
④ 장점	역사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줌	역사의 역동성, 구체성을 잘 드러냄
⑤ 단점	역사가 대중들로부터 멀어짐	개별적 현상이나 독자성 무시

19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보기>의 ()안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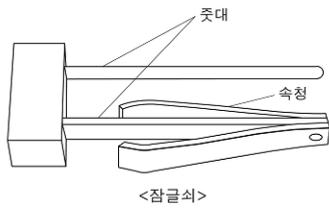
거시사와 미시사는 서로 () 관계가 바람직하다.

- ① 보완(補充)하는
- ② 대항(對抗)하는
- ③ 대체(代替)하는
- ④ 대립(對立)하는
- ⑤ 경쟁(競爭)하는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자물쇠와 열쇠는 잠그고 여는 장치이다. 자물쇠의 일반적인 기능은 귀중품의 보관과 기밀의 보안에 있기 때문에, 소유의 개념이 인류에게 생겨나면서부터 자물쇠는 만들어졌을 것이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일찍부터 자물쇠를 만들었는데, 자물쇠는 쇠통, 쇠금(鎖金) 등으로, 열쇠는 쇠, 쇠대, 개금(開金) 등으로 불렸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전통 자물쇠는 통일신라 때 것이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부분의 전통 자물쇠는 조선 후기의 것이다. 조선 이전에는 금동(金銅)이, 이후에는 철과 황동(黃銅)이 주재료였고, 후대로 갈수록 그 구조도 좀더 정교해졌다.

전통 자물쇠의 기본형은 ㄷ자형 자물쇠이다. 이 자물쇠는 크게 '자물통'과 '잠글쇠'로 구성되어 있다. 자물통은 정면과 측면 모두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주기능부인 잠글쇠



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 잠글쇠는 쫓대와 속칭이라는 V자형 판형 스프링으로 되어 있다. 이 속칭이 자물통 안의 구조물과 맞물렸다 떨어졌다 하면서 자물쇠가 잠겼다 열렸다 한다. 열쇠는 ㄱ자 형태로 끝이 짧게 굽어 있고, 끝에 네모 모양의 구멍이 뚫려 있다.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자물통의 열쇠 구멍, 잠글쇠 안에 있는 속칭의 크기와 구조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한다.

전통 자물쇠는 단번에 열 수 있는 단순 일자형 자물쇠에서부터, 자물쇠를 부수지 않는 한 현대 기술로도 열기 어려운 비밀 자물쇠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비밀 자물쇠는 다른 자물쇠와 달리 열쇠 구멍이 겹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열쇠 구멍에 열쇠를 넣어 여는 본조작 이전에 열쇠 구멍을 찾기 위한 사전 조작을 먼저 수행해야 한다. 조작 과정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2단에서 8단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다양하다. 자물통 표면에 있는 여러 부속물이 다양하여 그것이 장식인지 부속품인지 구분이 안 되고, 그것을 조작하는 과정도 비밀 자물쇠마다 조금씩 달라 그 자물쇠를 모르는 사람은 여는 데 애를 먹거나 아예 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비밀 자물쇠는 어떻게 열까? 우선 자물통 정면에 있는, 장식처럼 붙어 있는 단추를 위로 밀어 올리면서 동시에 잠글쇠를 약간 당긴다. 그러면 당긴 잠글쇠 반대편에 붙어 있는 장식을 돌릴 수 있고, 그것을 돌리면 또 자물쇠 밑바닥에 있는 장식을 오른쪽으로 밀 수 있다. 그러면 비로소 열쇠 구멍이 보인다.

이상의 사전 조작을 거친 다음에 열쇠를 삽입하고 손을 지그 채그로 눌러면서 밀고 당긴다. 이 때에도 퍼즐을 하나씩 풀어가듯이 열쇠를 눌러야 한다. 그렇게 하면서 끝까지 밀어야 자물통에서 잠글쇠가 빠져 나가 자물쇠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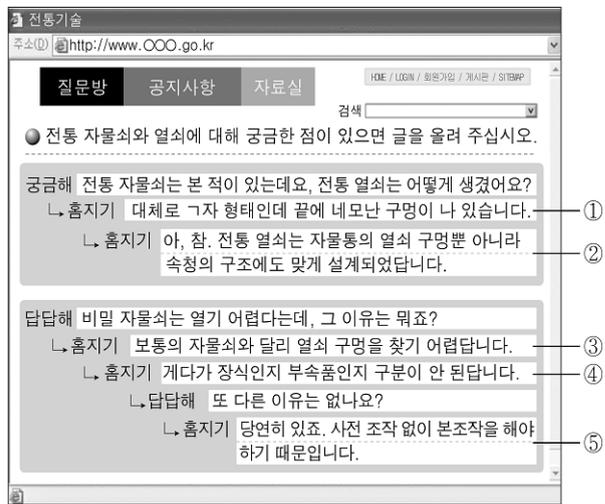
최근 도난 방지를 위한 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있다. 더욱 정교한 자물쇠 뿐만 아니라 지문이나 음성을 인식하여 열고 닫는 첨단시스템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통 자물쇠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찌면 쓸데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교한 자물쇠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사실은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다.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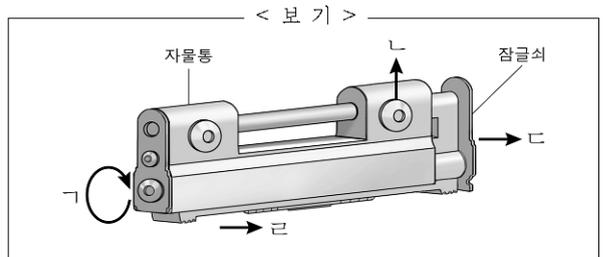
20 위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은? [1점]

- ① 전통 자물쇠의 종류
- ② 전통 자물쇠의 재료
- ③ 전통 자물쇠의 기본형
- ④ 전통 자물쇠의 개선점
- ⑤ 전통 자물쇠의 구성 요소

21 <보기>는 '전통 기술'을 소개한 인터넷 홈페이지의 질문방이다. 위 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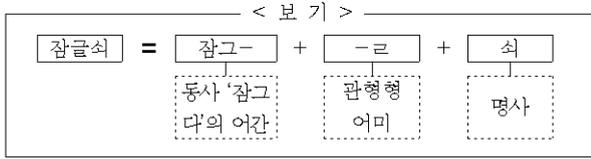


22 <보기>의 그림은 [A]에 따라 비밀 자물쇠의 열쇠 구멍을 찾기까지의 조작을 화살표로 나타낸 것이다.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 ① ㄱ → ㄷ → ㄴ → ㄹ
- ② ㄱ → ㄹ → ㄴ → ㄷ
- ③ ㄴ → ㄷ → ㄱ → ㄹ
- ④ ㄴ → ㄱ → ㄷ → ㄹ
- ⑤ ㄴ → ㄹ → ㄱ → ㄷ

23 <보기>는 ㉠의 구조를 분석한 것이다. 이와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진 단어는?



- ① 깔개 ② 뻥셈 ③ 출발지 ④ 바늘집 ⑤ 기울기

【24-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400년 전 중국의 사혁이라는 사람은 『고화품록』이라는 책에서 회화 비평의 기준 여섯 가지를 제시하였다. 그가 제시한 육법을 서양 회화와 연결해 보면 기운생동(氣韻生動)은 작품에서 느껴지는 기품과 비슷하고, 골법용필(骨法用筆)은 윤곽선과 붓 터치, 응물상형(應物象形)은 스케치, 수류부채(隨類賦彩)는 채색, 경영위치(經營位置)는 구도, 전이모사(轉移模寫)는 남의 작품을 본뜨거나 베끼는 모사와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중 기운생동은 기교와 관련된 나머지 다섯 가지와는 달리 추상적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다.

사혁의 육법 이론에서 기운생동을 회화의 핵심 요소로 강조한 사람은 사혁보다 200여 년 뒤에 태어난 ㉡ 장언원이다. 그는 그리려는 대상, 특히 살아 움직이는 대상의 감정이나 생각, 기운 등이 충분히 드러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운생동을 설명하였다. 그는 대상을 아무리 똑같이 그렸다 해도 그 그림에 대상이 지닌 기운이 살아있지 않으면 죽은 그림일 뿐이라고 했다. 그의 이런 주장 속에서 그가 기운을 대상의 '생명력'으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대상을 똑같이 모사하거나 화려한 채색으로 대상을 과장하는 화풍이 유행하였는데, 장언원은 대상의 본질을 파악하여 그것이 지닌 생명력을 온전히 화폭에 담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당시의 화풍에 일침을 가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에게 대상을 똑같이 그리는 일이나 화려하게 채색하는 것 ㉢ 따위는 작품의 본질적 요소가 될 수 없었던 것이다.

장언원 이후 기운생동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송 대의 저명한 미술평론가 ㉣ 박약허의 해석은 주목할 만하다. 그는 육법 중 유독 기운은 타고나는 자연적 본성이기 때문에 기교처럼 연습을 통해 습득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모든 세속의 때를 씻어내면 기운은 저절로 생동할 것이다.'라고 하여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구현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여기서 '세속의 때'란 인위(人爲)에 의해 형성된 사유의 틀을 의미하고, 세속의 때를 벗는다는 것은 인위를 벗은 무위(無爲)의 경지에 들어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박약허는 사람의 마음속에 일정한 사유의 틀이 존재하는데, 외부에서 주입된 사유의 틀 때문에 사물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인위에 의해 형성된 사유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그 방법으로 『장자』에 나오는 도가적 수양 방법을 제시하였다. 세속적 지식과 가치, 욕망 등 '세속의 때'를 씻고 나아가 자기 자신마저

잊기 위한 정신 수양을 통해 대상과 하나가 되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박약허에 의하면 화가가 이 무위(無爲)의 경지에 이를 때에야 비로소 무한한 감동을 주는 기운생동의 작품을 그릴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장언원의 기운생동이 그림 속 대상과 관련이 있다면, 박약허의 기운생동은 화가와 관련이 있다.

예술에서 기교는 중요하다. 동양 예술에서도 기교에 대한 숙련과 토대를 요구한다. 하지만 기운생동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동양 예술에서는 기교를 넘어선 정신적인 측면을 더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동양화 비평의 여섯 가지 기준
- ② 동양 미술이 나아가야 할 방향
- ③ 동양 미술과 서양 미술의 유사점
- ④ 동양 미술에서의 기운생동의 의미
- ⑤ 동양 미술에서 강조하는 화가의 기교

2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박약허는 '기운'은 본래부터 타고나는 것으로 보았다.
- ② 박약허는 인위에 의해 형성된 사유의 틀을 중시하였다.
- ③ 장언원은 기운생동을 그림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 ④ 동양의 회화에서는 기교보다는 정신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 ⑤ 장언원이 살던 당시에는 대상을 과장하는 화풍이 유행하였다.

26 ㉡와 ㉣의 관점이 나타난 작품평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배열한 것은?

< 보 기 >



㉠ 금방이라도 나무를 박차고 날 것 같은 독수리의 생명력이 느껴져.

㉡ 독수리의 깃털을 힘찬 붓질로 단숨에 그려 잘 표현하고 있어.

㉢ 독수리의 매서운 눈빛을 보니 마치 화가가 독수리가 된 듯한 경지에서 그린 것 같아.

㉣ 두 마리의 독수리가 상대를 매섭게 마주보는 모습을 섬세한 화필로 표현하고 있어.

장승업, 「호취도」

- ㉡ 장언원 ㉣ 박약허
- | | | |
|---|---|---|
| ① | ㄱ | ㄴ |
| ② | ㄱ | ㄷ |
| ③ | ㄱ | ㄹ |
| ④ | ㄴ | ㄷ |
| ⑤ | ㄴ | ㄹ |

27. <보기>의 설명을 고려할 때, 단어의 쓰임이 ㉠과 다른 것은?

< 보 기 >

㉠ '따위'는 사람이나 사물을 알잡거나 부정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글쓴이가 굳이 '따위'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한 것은 사물에 대한 정밀한 묘사나 화려한 채색이 중요하지 않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 ① 형제간의 우애보다 집문서와 같은 종이 나부랭이가 중요하니?
- ② 공연한 실술로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 ③ 그렇게 심하게 흐틀갈을 떨면 잘 되어가던 일도 그르치기 십상이야.
- ④ 실패를 남의 탓으로만 돌리는 것은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어!
- 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더니 자네를 두고 이르는 말이군.

【28-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수남이는 청계천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일하는 성실한 열여섯 살의 점원이다. 어느 날 배달 가서 세워 놓은 자전거가 바람에 넘어져 고급 승용차에 흠집을 낸다. 승용차 주인은 수리비로 오천 원을 요구하며 자전거 바퀴를 자물쇠로 채워 놓는다.

수남이는 바보가 돼 버린 아이처럼 조용히 ㉠ 명청히 서 있었다. 누군가가 나직이 속삭였다.

“토껴라 토껴. 그까짓 것 갖고 토껴라.”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감미로웠다. 수남이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이번에는 좀더 점잖고 어른스러운 소리가 나왔다.

“그래라, 그래. 그까짓 거 들고 도망가렴. 뒷일은 우리가 감당할게.”

그러자 모든 구경꾼이 수남이의 편이 되어 외글외글 외쳐 댔다. “도망가라, 어서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수남이는 자기편이 되어 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남이는 자전거를 마치 검부러기처럼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정말이지 조금도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갈기는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을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바람이 세더니만 필시 이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왔나, 설마 그럴 리야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눈치였다.

수남이는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 주지 못하고 한동안 헉헉대기만 한다.

“임마,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네놈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

이다, 임마.”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남이의 가슴에 가지처럼 걸린다. 수남이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주인 영감님께 고해 바친다.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 한다.

“잘 했다, 잘 했어. 맨날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그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펜치를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수남이의 눈에 흡사 도둑놈 두목 같아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 얼굴이 ㉢ 누런 퐁뽕 인 것처럼 차 지금 깨달은 것 같아 속이 메스껍다.

마침내 자물쇠를 깨뜨렸나 보다. 영감님 얼굴에 희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전거로 골목을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 들어와서는, “네놈 오늘 운 텃다.”

그리고는 수남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불과 턱을 두툼한 손으로 꺾어온 듯이 감싼다. 영감님이 기분이 좋을 때면 수남이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으레 그렇게 했었고, 수남이도 그걸 좋아했었다.

그런데 오늘은 싫다. 영감님의 손이 싫다. 그것이 운 트기는 커녕 재수 운 붙었다는 생각이 여전하고, 수남이는 그 날 온종일 우울했다.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히 생각할 새도 없는 바쁜 하루였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인데에서 날라 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남이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 같은 시간이었다. 책을 펴 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 보고, 턱을 피고 소년답게 감미로운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 수남이는 그게 되지를 않았다. ㉣ 책을 집어 던졌다.

“낮에 내가 한 짓은 옳은 짓이었을까? 옳은 것도 없지만 나쁜 것은 또 뭐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체에 나 같은 아이

[A]에게 오천 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풀려 준 것이 뭐가 나쁜가?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의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네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고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다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을 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더라 말인가.

수남이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갈길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갑자기 풀리면서 전신이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 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질은 쾌감, 아아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길게 느꼈던 것이다.

혹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수남이는 방바닥에서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닥닥 일어서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 좁은 방안을 헤맸다.

수남이의 눈앞에는 수갑을 차고, 순경들에게 끌려 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이 환히 떠오른다.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은 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버지의 얼굴도 떠오른다.

(중략)

소년은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 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해 안 난 것만 좋아서 "오늘 운 났다."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수남이는 ㉠ 짐을 꾸렸다. 아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실을 굳힌 수남이의 얼굴은 ㉡ 누런 뽕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 박완서, 「자전거 도둑」 -

28 <보기>를 [A]로 바꿔 썼다고 가정할 때, 그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그러나 오늘 수남이는 그게 되지를 않았다. 책을 집어던졌다. 그리고 저녁 내내 안절부절못했다.

- ① 인물이 갈등하는 이유가 선명해졌다.
- ② 독자가 상상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다.
- ③ 인물의 내면 심리가 보다 세밀하게 표현되었다.
- ④ 다른 인물의 말이 추가되어 갈등의 초점이 부각되었다.
- ⑤ 자문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고민하는 모습이 강화되었다.

29 다음은 수남이가 주인 영감에게 쓴 편지이다. 위 글의 내용으로 보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인 영감님께

그동안 영감님 가게에서의 생활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 일을 끝낸 저녁에는 공부를 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일어난 일로 저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 저에게는 형이 있는데, 형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아버지는 큰 충격을 받았고, 저에게 ㉢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도둑질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 저는 영감님 곁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영감님께서 제 행동을 칭찬하셨는데, 그건 ㉤ 영감님의 진심이 아닌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영감님 곁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남이 올림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30 ㉦-㉩에 담긴 심리나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행동	심리 및 태도
① ㉦ 멍청히 서 있었다.	⇨ 당황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함.
② ㉧ 더 신나게 달렸다.	⇨ 구경꾼들로부터 벗어난 데서 오는 흥겨운 느낌.
③ ㉨ 책을 집어 던졌다.	⇨ 낮에 한 행동으로 인해 마음이 편하지 않음.
④ ㉩ 좁은 방안을 헤맸다.	⇨ 불편한 심정으로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함.
⑤ ㉠ 짐을 꾸렸다.	⇨ 불편한 심정이 해소되었음.

31 ㉢와 ㉤의 상징적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질만능주의에 빠진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과 반감
- ② 도덕이나 양심보다 이익을 중시하는 삶의 태도
- ③ 험난한 세상을 꿰뚫어 헤쳐 나가려는 자세
- ④ 사회적 규범에 억눌린 인간의 원초적 본성
- ⑤ 궁핍한 삶으로 인해 상실된 인간의 윤리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무역이나 해외 여행 등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두 나라의 화폐를 교환할 필요가 있다. 이때 두 나라의 화폐는 일정한 비율로 교환되는데, 이 비율을 환율(換率)이라고 한다. 환율은 특정 국가 통화에 대해 자국 통화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물건의 가격이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처럼, 환율도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국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가 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표시하고 있으며, 1달러=1,000원과 같은 형태로 나타낸다.

환율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1달러당 1,000원 하던 환율이 900원으로 내려가면 1달러를 교환할 때 필요한 우리나라 원화가 줄어든다. 이때 '환율이 내렸다'고 하는데, 이것은 거꾸로 원화 가치가 올랐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것을 평가절상 되었다고 하며, 원화가 오른 상태가 지속되면 '원고(高)'가 진행된다고 한다. 반대로 1달러당 1,000원 하던 환율이 1,100원으로 올라가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는데, 이때에는 원화가 평가절하 되었다고 하며 이 상태가 유지되면 '원저(低)'가 진행된다고 한다.

이러한 환율 변화는 경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호재가 될 수도, 악재가 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환율이 내려가면 국내 수출업체들은 불리해진다. 원화의 달러당 환율이 1,000원일 때 국내기업이 수출 대금으로 1달러를 받으면 1,000원을 받는 셈이다. 하지만 환율이 900원으로 내려가면 1달러를 받아 900원밖에 받지 못하므로 기업의 수익이 줄어든다. 반면에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업체들은 유리해진다. 수입상품 대금을 치를 때 원화 대금이 줄기 때문이다. 그래서 원화 환율이 내려가면 수입(輸入)이 증가한다.

환율이 올라가면 일반적으로 이와 반대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환율이 1,100원으로 오르면 수출대금으로 달러당 1,000원을 받던 수출업체들은 더 많은 원화를 받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의 수익성이 좋아진다. 이와 반대로 수입업체들은 수입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수입원가가 비싸진다. 따라서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공산품의 가격도 상승한다. 뿐만 아니라 기계류 등 수입 완제품 가격도 상승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국내 물가 전반은 상승 압력을 받는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 의존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환율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 환율이 완만하게 변동하면 수출입업체가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면 국내 수출입업체들이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어려워 심각한 문제가 야기되기도 한다. 따라서 환율 변동으로 인한 업체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환율 관리가 필요하다.

36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점]

- ① 우리나라 경제는 환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 ② 환율은 외환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된다.
- ③ 대부분의 나라는 미국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율을 표시한다.
- ④ 환율에 따라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 ⑤ 환율이 오르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원자재의 수입 가격이 하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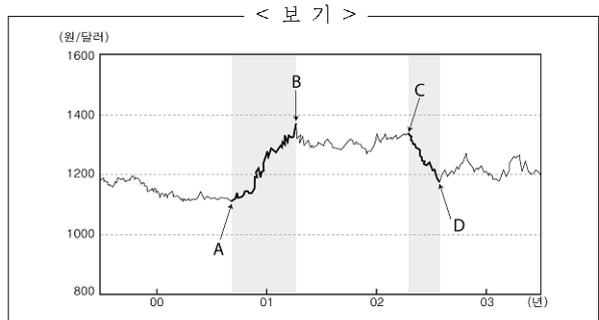
37 위 글에 대한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 보 기 >

ㄱ. 핵심이 되는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ㄴ. 개념이 형성된 이론적 배경을 소개하고 있다.
 ㄷ. 개념을 구체적 현상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ㄹ.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여 개념을 풀이하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ㄴ, ㄹ ⑤ ㄷ, ㄹ

38 위 글의 내용을 고려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A~B 기간에는 수출이 줄어드는 대신 수입은 늘었겠군.
- ② A~B 기간에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가치가 낮아졌겠군.
- ③ C~D 기간에는 달러화에 대해 원화가 평가절상 되고 있군.
- ④ A 지점보다 B 지점에서는 수입품의 국내 가격이 높았겠군.
- ⑤ C 지점에 비해 D 지점에서는 국내 수출업체들의 수익성이 나빠질 가능성이 높군.

40 <보기>의 설명을 바탕으로 (가)에 나타난 시어들을 대응시켰을 때, 그 연결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시는 절친한 친구 사이였던 두보와 자위자의 사귀를 떠올리며 친구의 방문을 기다리는 화자의 심경을 노래한 작품이다.

- ① 두보 - 나
- ② 자위자 - 그대
- ③ 수레와 말 - 술병
- ④ 구령 - 깊은 시름
- ⑤ 배고픔과 추위 - 가난한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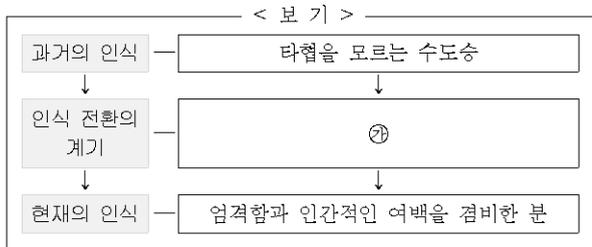
41 ㉠-㉣ 중, ㉢ 인간적인 여백과 관련 깊은 것을 고르면?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42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 제시된 소재가 이후의 작품에 순서대로 나온다.
- ② 제2수의 '구름'은 제3수의 '꽃'과 함축적 의미가 유사하다.
- ③ 제4수는 대비적 속성을 통해 대상의 함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제5수는 속성만으로 대상을 짐작할 수 있게 표현되었다.
- ⑤ 제6수의 소재는 이전 소재들의 속성을 아우르고 있다.

43 <보기>는 (다)에 나타난 글쓴이의 인식 전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선사가 남긴 거문고와 통소를 접하게 됨
- ② 선사가 앉은 반석에 다람쥐가 나타난 것을 봄
- ③ 선사가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고 살아갔다고 생각함
- ④ 선사가 이미 사바세계에서 인연을 거두었다는 것을 앎
- ⑤ 선사가 평생토록 산문 밖 출입을 하지 않은 사실을 들음

【44-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룡이 남쪽으로 가는데 한 곳에 다다르니 큰 산이 앞길을 막았거늘, 갈 길을 못 찾아 주저할 즈음에 금령*이 굴러 길을 인도하였다. 금령을 따라 여러 고개를 넘어가니 절벽 사이에 푸른 잔디와 암석이 적어 편하였다. 해룡이 돌 위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 문득 벽력 소리가 진동하며 금터럭 돌린 피이한 김승이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달려들어 해룡을 물려 하였다. 해룡이 급히 피하려 하였는데 금령이 내달아 막으니, 그것이 몸을 흔들어 변하여 머리 아홉 가진 악귀가 되어 금령을 집어 삼키고 골짜기로 들어갔다.

해룡이 크게 놀라 낙담하여 말하기를,
“분명코 금령이 죽었도다.”
하고 탄식하여 어찌할 줄 몰랐다.
홀연 한 바람 미친 듯한 바람이 일어나며 구름 속에서 크게 불려 말하기를,

“그대는 어찌 금령을 구하지 아니하고 저다지 방황하느냐?”
하고 문득 간 데 없었다.
해룡이 생각하되,
‘하늘이 가르치시나 몸에 쇳조각 하나 없으니 어찌 대적하리오? 그러나 금령이 아니었다더라면 내가 어찌 살아났으리오?’
하고 옷차림을 단단히 하고 골짜기로 뛰어들어가지니 지척을 분변할 수 없었다. 몇 리를 들어가되 종적이 없거늘, 죽을 힘을 다하여 기어 들어가니 홀연 천지가 명랑하고 일월이 조요하였다. 두루 살펴보니 들비석에 금자로 새겼으니,

㉠ ‘남전산 봉래동’
이라 하였고, 구름 같은 석교 위에 만장폭포가 거룩하였다. 그곳을 지나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여니 주궁패궐(珠宮貝闕)*과 내성 외곽이 은은히 비거늘, 자세히 본즉 문 위에 금자로 크게,
‘금선수도부’
라 써어 있었다.

원래 악귀는 천지개벽 후에 일월의 정기로 생겨나서 득도하여 신통이 거룩하고 재주가 무궁하였다. 해룡이 문밖에서 주저하며 감히 들어가지 못하는데, 이윽고 안에서 여러 여자들이 나오거늘 해룡이 급히 풀 사이에 몸을 숨겨 동정을 살폈다. 여자들이 시냇가에서 피 묻은 옷을 빨며 서로 말하되,

“우리 대왕이 전일에는 신통이 거룩하여 당할 자 없더니 오늘 나가시더니 홀연 속을 앓아 피를 무수히 토하고 기절하니, 그런 신통으로도 이런 병을 얻었으니 일찍 나오면 좋으려니와 만일 오래 낫지 않으면 우리들의 피로움이 되리도다.”
하였다.

그 중 한 여자가 말하기를,
“우리 공주 낭량이 간밤에 ㉡ 꿈을 꾸니 하늘에서 선관이 내려와 이르되, ‘내일 오시에 수재 한 사람이 이곳에 들어와 악귀를 잡고 그대를 구하여 고국에 돌아가게 할 것이다. 이 사람은 동해 용왕의 아들이로서 그대와 인연이 있으니 그대가 이리 뭐도 또한 천수라. 부디 천명을 어기지 말라’ 당부하고, ‘누설하지 말라’ 하시더니, 오늘 오시가 되도록 소식이 없으니 그런 꿈도 허사가 하노라.”

하고 눈물을 흘리며 말하기를
“우리도 언제 이곳을 벗어나 고국에 돌아가 부모를 만나 뵈옵고,”
하며 슬피 탄식하였다.

해룡이 이 말을 듣고 즉시 풀을 헤치고 내달으니, 그 여자들이 놀라 달아나려 하였다. 해룡이 만류하여 말하기를, “그대들은 놀라지 말라. 내가 악귀를 없애고자 여기 들어왔으니 그 악귀가 있는 곳을 자세히 가르치라.”

그 여자들이 이 말을 듣고 공주 낭랑의 꿈을 생각하며 신기하였다. 이에 나아가 울며 아뢰기를,

“그대 덕분에 우리들이 살아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고 해룡을 인도하여 들어가니, 중문은 첩첩하고 전각은 아름다운 곳에 흉악한 짐승이 신음하여 앓는 소리가 들렸다.

해룡이 뛰어 올라가 보니, 그 짐승이 상 위에 누워 앓다가 사람을 보고 일어나려 하다가 도로 자빠지며 배를 움키고 일신을 뒤틀며 움직이지 못하고 입으로 피를 무수히 토하고 거꾸러졌다. 해룡이 이 형상을 보고 악귀를 처치하고자 하나 손에 쇠조각 하나 없었는데, 홀연 미인 한 사람이 붉은 치마를 입고 가볍게 걸어서 벽에 걸린 보검을 갖다가 해룡에게 주었다. 해룡이 급히 칼을 받아 들고 달려들어 악귀의 가슴을 무수히 찌르니, 그 짐승이 그제야 죽어 늘어졌다.

자세히 보니 금터럭 돌힌 흉악한 패지이거늘 가슴을 헤치고 보니 금령이 굴러 나왔다. 해룡이 크게 반기며 소리 질러 말하기를,

“너희 수십인 여자들이 다 악귀로서 사람으로 변하여 나를 속임이 아니냐?”

모든 여자들이 일시에 꿇어 아뢰기를, “우리들은 악귀가 아니라 우리 팔자 기구하여 몸쓸 악귀에게 잡혀 와 험악한 옥을 보고 수하에서 시중을 들게 되어 죽지도 못하고 이곳에 할 수 없이 있는 사람으로소이다. 아까 보검 갖다 주던 이는 지금 천자의 외동딸 금선 공주입니다.” 하였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미인이 슬픈 기색으로 나와와 사례하기를,

“나는 과연 공주러니, 6년 전에 모후 낭랑을 피시키고 후원에서 달을 구경하며 즐기다가 이 악귀에게 잡혀 와 시비들이 밤낮으로 지키는 까닭으로 지금까지 죽지 못하고 옥을 참고 살아 왔습니다. ㉠천행으로 그대의 구함을 입어 고국에 돌아가 부모를 만나게 되니 이 은혜는 지금 죽어도 한이 없을까 합니다.”

하며 소매로 낯을 가리고 목이 메어 흐느끼거늘 해룡이 자초지종을 다 듣고 슬픔을 이기지 못하더라.

- 작자 미상, 「금방울전」 -

* 금령(金鈴) : 금방울.

* 주궁매결(珠宮貝闕) : 진주나 조개 따위의 보물로 호화롭게 꾸민 궁궐.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해룡이 영웅적인 활약을 펼쳐 신분적 평등을 이룩하는 공간이다.
- ② 궁궐과 성곽을 갖춘 것으로 보아 현실 세계를 본뜬 비현실적 공간이다.
- ③ 악귀의 소굴임에도 경계가 뛰어나고 신경의 분위기마저 느껴지는 공간이다.
- ④ 해룡이 힘들게 찾아가는 것으로 보아 현실계의 인간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다.
- ⑤ 잡혀온 공주와 여자들이 악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공간이다.

45 <보기>는 위 글의 근원 설화이다. 위 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옛날 악귀가 임금님의 세 공주를 납치하자, 임금은 누구든 공주를 구해오면 막내딸과 결혼시키겠다고 약속한다. 이 때 무신이 나서서 하인들을 데리고 악귀의 소굴을 찾아 해매는데, 꿈속에 나타난 산신령의 도움으로 악귀의 굴을 찾는 데 성공한다. 지하 소굴로 내려간 무신은 수박으로 변신하여 악귀에게 접근하고 공주들의 도움으로 잠든 악귀를 죽이는 데 성공한다. 그러나 소굴 밖에 있던 하인들의 배신으로 공주만 탈출하고 무신은 굴속에 갇히고 만다. 이때 산신령이 나타나 말 한 필을 주어서 무신은 그것을 타고 무사히 소굴 밖으로 나오고, 배신한 하인들을 벌한 뒤 막내 공주와 결혼한다.

- 지하국 대적 퇴치 설화 -

- ① <보기>와 달리 위 글에는 하인들의 배신 등과 같은 요소는 없군.
- ② 위 글과 <보기> 모두 악귀를 물리치는 데 공주가 도움을 주고 있군.
- ③ 위 글과 <보기> 모두 중심인물이 악귀의 소굴에서 공주를 구하는 내용이 있군.
- ④ <보기>의 '무신'은 평범한 인물로, 위 글의 '해룡'은 비범한 인물로 나타나 있군.
- ⑤ <보기>의 무신은 '공주'를, 위 글의 해룡은 '금령'을 구하기 위해 악귀의 소굴에 가게 되었군.

4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제시함으로써, 사건의 전개 방향을 암시하고 있다.
- ② 해룡의 전생 신분을 알려줌으로써, 해룡이 고귀한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 ③ 천명을 지켜야 함을 당부함으로써, 해룡과 공주의 인연을 예고하고 있다.
- ④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는 금기를 제시함으로써, 공주에게 좌절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 ⑤ 천관이 내려와 말을 전함으로써, 하늘이 공주를 보호하고 도와주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47 ㉢과 가장 관련 깊은 한자성어는? [1점]

- ① 각골난망(刻骨難忘)
- ② 노심초사(勞心焦思)
- ③ 오매불망(寤寐不忘)
- ④ 학수고대(鶴首苦待)
- ⑤ 풍수지탄(風樹之嘆)

【48-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지구에서 망원경으로 달을 보면 화산 분화구와 같이 생긴 수 많은 구덩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과거에는 이 구덩이들을 화산 폭발에 의해 생성된 분화구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 구덩이들은 화산 분화구가 아니라 소행성이나 혜성 등이 충돌해서 생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소행성이나 혜성이 천체의 표면에 충돌하여 만들어진 구덩이를 충돌구라 한다. 지구에도 이런 충돌구들이 있는데, 지구보다 표면적이 더 좁은 달에 비해 지구에 있는 충돌구의 수가 훨씬 적다. ㉠ 그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지구 대기와 관련하여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크기가 크지 않은 소행성이나 혜성이 지구 대기권에 수평에 가까운 각도로 접근할 경우, 지구의 대기권에 진입조차 하지 못하고 튕겨져 나가버린다. 소행성이나 혜성이 매우 크거나 단단해서 대기권에 진입하더라도 대기와의 마찰로 인해 타버리거나 속도가 줄어 지구 표면에 생기는 충돌구의 수가 크기는 감소한다.

지구 표면의 3분의 2가 바다인 것도 지구의 충돌구 수가 적은 것과 관련이 있다. 대기와의 마찰로 어느 정도 속도가 줄어든 충돌체가 바다로 떨어질 경우, 바닷물은 대기보다도 훨씬 효율적으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바다에 떨어진 소행성이나 혜성은 바다 밑바닥에 그 흔적을 미미하게 남기거나 아예 남기지 않을 수도 있다.

지구에 충돌구가 적은 보다 핵심적인 이유는 지구가 지질학적으로 살아 있는 행성이라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지구에서는 여러 가지 지질 활동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지질 활동에 의해서 충돌구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지구의 충돌구들을 조사해보면 오래된 것보다 비교적 최근의 것들이 훨씬 많은 사실은 이를 뒷받침해 준다. 지구에서 충돌구를 사라지게 하는 지질 활동으로는 비, 바람 등에 의한 풍화 작용, 화산 활동 등이 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판의 이동을 들 수 있다.

지구 표면은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plate)으로 나뉘어 있다. 지각과 맨틀의 상부를 일부 포함하는 지구의 판들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일 년에 수 센티미터를 이동하면서 지구 표면에 거대한 규모의 지진, 화산 활동, 산맥과 해구의 형성 등 여러 가지 지질 활동을 일으킨다. 판의 이동으로 인한 지질 활동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대륙의 모양까지도 변화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수의 충돌구가 사라지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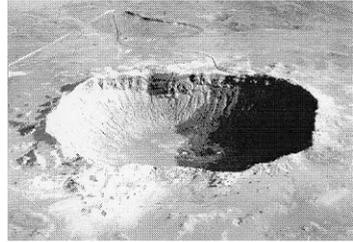
바다의 밑바닥에 생긴 충돌구 역시 판의 이동에 의해 사라지게 된다. 바다 밑을 형성하는 해양지각은 해령이라고 불리는 해저 산맥에서 생성되는데, 이것도 판의 이동에 따라 서서히 이동을 하게 된다. 이 해양지각은 수명이 약 2억 년을 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의 범위 내에서 서서히 이동하다가 대륙을 만나 맨틀 속으로 사라져 버린다. 이런 이유로 바다 밑바닥에 충돌구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시간이 2억 년 이상 흘러 버리면 충돌구는 이 해양지각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48 위 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특정한 현상이 나타난 원인을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실험 결과들로부터 과학적 원리를 도출하고 있다.
- ③ 현상에 대한 이론의 변모 과정을 통시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 ④ 가설을 설정한 후 유사한 조건들을 적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 ⑤ 현상에 대한 대립된 견해를 소개한 후 차이점을 제시하고 있다.

49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이 <보기>를 접한 후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배린저 충돌구
- 지름: 1km가 조금 넘는 작은 충돌구
- 생성 연대: 약 5억 년 전

- ① 이 지역은 지질 활동이 심하지 않았으나 보군.
- ② 판의 이동이 있었다면 이 충돌구는 더 커졌겠군.
- ③ 지구 대기층이 없었다면 이 충돌구는 좀 더 컸겠군.
- ④ 이 충돌구가 바다에 생성되었다면 이미 없어졌겠군.
- ⑤ 지질 활동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다면 이 충돌구가 없어질 수도 있겠군.

50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비, 바람 등에 의한 풍화 작용
- ② 판의 이동으로 인한 해양지각의 소멸
- ③ 거대한 규모의 화산 폭발과 같은 지질 활동
- ④ 소행성이나 혜성 등을 튕겨내거나 태우는 대기의 역할
- ⑤ 소행성이나 혜성 등이 태양계 행성과 충돌하는 빈도수 감소

※ 확인 사항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